

2023. 7. 27

대우건설 047040

2Q23 Review: 호실적과 해외 수주, 빠질 게 없다

유틸리티/건설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RA **윤동준**
02. 6454-4886
dongjun.yoon@meritz.co.kr

베트남 이익 기여에 힘입어 이번에도 기대치 상회한 실적

2Q23 연결 영업이익은 2,177억원(+23.2% YoY)을 기록하며 컨센서스(1,894억원)를 상회. 베트남에서 토지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연결종속의 매출총이익 기여가 커졌던 점(469억원)이 주요 요인. 판관비 효율화(-5.4% YoY) 역시 도움이 됨. 베트남 법인의 이익 기여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 전망

다만 주택건축 부문의 GPM이 7%(-1.8%p QoQ)를 기록하면서 주택 건축 부문 매출총이익이 예상을 하회했는데, 이는 준공 물량이 5월과 6월에 집중되면서 돌관 비용이 일부 발생했기 때문. 반대로 주택/건축 매출은 2.12조원(+32.9% YoY)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 준공 물량이 감소하는 하반기, 특히 4Q23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임

돋보이는 해외 수주 성과. 이미 목표치 달성했고 하반기 +α 가능성 높음

동사는 중점 지역인 이라크(알포 해군기지 및 항만), 리비아(SOC 인프라 복구 및 발전) 이외에도 신규 시장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료공장 수주를 추진하는 등 하반기에도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펼칠 계획. 상반기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2.3조원을 수주하며 연간 해외 수주 목표(1.8조원)를 이미 달성한 상황. 2023년 연간으로는 당사의 기존 가정치(3.3조원)를 상회하는 플랜트 수주 4조원도 가능해보임. 특히나 해당 지역들에서 수의 계약을 기반으로 수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원전 수주 역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음. 12월 신한울 3,4호기의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며, 2024년에는 폴란드 및 체코 프로젝트의 수주가 기대됨

4Q23 해외 수주 성과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에 머무르진 않을 것

호실적 및 해외 수주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건설 업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역대 최하단(PBR 0.38배)에 위치

동사의 PF 지급보증 중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사업장이라는 점과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을 고려했을 때 주택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 보기 어려움. 해외 수주 성과가 가시화되는 4Q23부터 점진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표1 대우건설 2Q23 실적 Review									
(십억원)	2Q23P	2Q22	(% YoY)	1Q23	(% QoQ)	컨센서스	(% diff.)	당사 예상치	(% diff.)
매출액	3,271.4	2,440.9	34.0	2,608.1	25.4	2,823.0	15.9	2,839.9	15.2
영업이익	217.7	86.5	151.8	176.7	23.2	189.4	15.0	203.8	6.9
세전이익	310.3	68.2	355.2	129.9	138.9	171.8	80.6	214.4	44.7
순이익	199.5	48.8	308.9	97.1	105.6	126.3	58.0	153.6	29.9

자료: 대우건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